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복 초등학교 교장

스승 사(師) 자의 사용 의미

우리말은 뜻글자인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한자를 알면 그 말이 지닌 뜻을 바로 알게 된다. 학교(學校)는 배울 학(學) 집 교(校)의 합성으로 배우는 집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자 공부부 어려서 많이 하여 초등학교에서와 중학교에서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한자를 나 혼자 하는 한자 공부 방법으로 익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한글로 쓴 낱말을 한자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어떤 자를 써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춧볼은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힌다.

춧볼처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희생정신으로 남을 선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 하는 데 스승 사(師) 자를 쓴다.

교사 강사는 학교에서 희생적 봉사자며 의사 약사는 병원에서 건강을 지켜주고 치료하고 선도하는 스승이며 목사 전도사는 영혼을 선도하는 희생자로서 스승이다.

그러므로 스승 사(師)자가 붙은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오직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 강사 의사 약사 목사 전도사는 스승 사(師)자를 쓴다.

교사·강사에 쓰는 스승 사(師)는 오랜 수련을 거치거나 전문적인 일에 주로 쓰인다.

국어사전에 집술사(師)는 '침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집술사(士)는 '침놓는 자격증을 딴 사람'으로 분류돼 있다.

요리사·제빵사·세공사·조물사에 스승 사가 붙고, 안마사와 함께 세신사도 사(師)자를 쓴다.

칼 쓰는 검사(劍士)와 활 쏘는 궁사(弓師)의 한자를 달리한 것도 흥미롭다.

고교 시절 윤리 선생님이 '왜 의사·목사에게 스승 사자를 붙이는지' 묻자, '생명을 다루고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어서'라고 풀이했다.

의사는 신체의 생명을, 목사는 영혼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했다. 객관

적 근거가 있는지 더 묻지 않았지만, 고개가 끄덕여졌다.

전문직·기술직 뒤에 가장 많이 붙는 '사'자는 한자로 4개(士·師·事·使)가 있다. 선비 사(士)는 직업을 존중하는 뜻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학위(학사·박사), 기술직(운전사·조종사·항해사·숙기사·촬영사), 면허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검안사·감정사), 보통 특정 분야 뒤에 붙는 상담사·지도사, 힘이 센 역사나 군사, 학예사·약사·바둑기사에도 사(士)자가 붙는다. 검사·판사는 일 사(事)를 쓴다.

조선 시대 중죄인을 신문한 의금부도사도 이 글자를 썼다.

변호사(士)를 빼고 죄를 다루는 공공 영역엔 두루 일 사(事)를 쓴 셈이다.

외교관 중 영사와 도지사, 집안일을 돌보거나 교회 직분인 집사도 사(事)자가 붙는다.

보낼 사(使)는 외교관인 대사·공사, 현재 도지사 격인 조선 시대 관

찰사, 이순신 장군도 맑은 삼도수군 통제사까지 파견직 벼슬아치에 붙인다.

연산군 때 조정에서 예쁜 여자를 뽑으려고 전국에 보낸 채홍사도 사(使)자를 썼다.

사욕을 버리고 희생적 봉사 정신으로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스승인데 스승이 스승의 본분을 망각하고 돈에 욕심을 갖는다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돈과 연관 지어 행동한다던가 목사가 돈에 욕심을 갖고 정치에 관여한다던 스승 사(師)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스승 사(師)자를 쓰는 교사가 탈선하고 의사가 탈선해서 노조를 형성하거나 집단 이기주의로 의사가 환자를 망각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요즈음 코로나19 난리 속에 스승 사(師)자 의미를 망각한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는 전광훈 목사나 방역 당국에 거짓말하고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 여러 목사를 보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도외시키고 장기파업 중인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공동체를 흐드는 두 스승 사(師)자 직업의 목사와 의사의 탈선행위는 하루빨리 본연 궤도에 올라서서 본분을 지키고 사심을 버리고 춧볼처럼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일하는 스승 사(師)자가 붙을 직함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설

올해 추석은 '방콕' 합시다

"이번 한가위는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권오봉 여수시장과 최형식 담양군수등 전남 지자체장들의 안타까운 호소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책이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의 풍경이 신종속도를 보이고 있다.

부모는 멀리 있는 자녀들의 귀성을 만류하고 있고, 온 가족이 모여 하던 차례와 성묘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다가도 이동이 많은 연휴 이후 재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동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 때 가족, 친인척 간의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불 보듯 뻔해 민족 대이동을 조래하는 명절 가족 간 모임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코로나 확진자는 한 자릿수까지 줄었다. 하지만 5월 황금연휴 기간 이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태원 클럽 등의 집단 감염으로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광복절 연휴 때도 추세가 비슷했다. 안정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이때를 기점으로 폭증한 것이다. 이동이 많은 연휴가 지나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간 22%대에 달하고 있다.

이런바 '깜깜이' 확진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방역망 밖의 무

증상 경증 환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번 추석이 자칫 코로나19 가을 대유행을 초래할 판도라 상자라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정부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귀향이나 성묘, 외출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내 불안시설 예약제 운영, 온라인 성묘 권장, 귀성·귀경 열차와 고속버스 좌석 50% 축소 운행 등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

추석조차 마음껏 즐기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가까스로 접히는 코로나가 민족 대이동으로 대확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불씨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인위적으로 귀성길을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추석이 끝난 후' 어찌 될지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때까지 사회 곳곳의 잠복감염이나 무증상감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결국 국민 각자가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그나마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안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임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이번 추석은 '집콕'방콕이 못내 아쉽겠지만 내년 설 명절을 기약하며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부상조 미덕 아쉽다

얼마전 국내 대학 연구원에서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가 발표된바 있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7%는 남한주민이 친근하다고 평가했고 71.2%는 포용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북한이탈주민 10명중 8명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찾아 넘어온 따뜻한 남쪽나라에서 만난 주변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들은 좋은 인

상을 갖고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도 되었고 터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만족스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국내 입국 이후 시간이 흘렀건만 아직도 남북한의 체제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왜곡된 편견, 만성화된 외로움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답변에 가슴이 먹먹함을 느낀다.

자유 대한민국 사회와 다른 폐쇄적 북한사회에서 이제껏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오다보니 입국 이후 겪게되는 생소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돈은 상당할것이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제반문제를 모르지 북한이탈주민 혼자서 감당하고 극복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자신의 일처럼 서로 도와주었던 정착에 애를 먹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주변 지인 등 관계자들이

조금만 애정을 갖고 따뜻한 조연과 협조를 해주다면 충분히 극복해낼수 있는 문제다.

흔히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칭하는 그들도 사실 우리와 전혀 다른사람들은 아니다.

한 민족으로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하여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하고 자유의 품에 안겨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주민이고 이웃이다.

앞으로도 많은 수의 탈북민이 자유 대한의 땅을 찾아 입국이 잇따를 것이다.

통일의 마중물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동행할 따뜻한 손을 내밀 때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753번길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